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김경자 김기안/하세련 김명중/이종문 김미희 김병율/이영숙 김외자 김윤주 김재인/이강우 김경자 김현욱 박부웅/최기남 박혜진 백성현 송형기/김현숙 오택현 윤 숙 윤승한/민옥희 윤영준/박진숙 이상희 이육남 이창규/곽정순 이태일/송백현 이한철/박희영 이향교 장준주/김현진 정경석/박지순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최성현/윤정자 최정규/김미영 황영옥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김경자 김명중/이종문 김미희 김병율/이영숙 김외자 김재인/이강우 김경자 김준구/이소는 김현욱 박지순 박춘자 박희영 송다해 안지영 윤 숙 이미자 이태일/송백현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하세련 에스더여전도회 홍한표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제호 이필례 강영성/신화순 김경자 김병숙 김병율/이영숙 김중익 박부웅/최기남 박정숙 박춘자 백경자 심순옥 윤정자 이미자 이연숙 이찬호 이효숙 채영엽 최선미 최순재 무 명 신이나 신지후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강은미 김경엽 김근봉 김명숙 김민성 김준구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박정숙 박춘홍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미자 이상이 이상희 이설아 이소는 이승애 이육남 정옥순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김민혁 무 명 박서광 양일석 이노을 정승현

☞ **월정현금**

박춘자

주간 성경연구

27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시편 139편 13절 ~ 24절			
월요일	시편 140편 1절 ~ 13절	목요일	시편 143편 1절 ~ 12절	
화요일	시편 141편 1절 ~ 10절	금요일	시편 144편 1절 ~ 15절	
수요일	시편 142편 1절 ~ 7절	토요일	시편 145편 1절 ~ 13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송술기			
찬양대	지 위 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공희라 최유경		
		글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리남 : 안석철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장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0. 6. 28.

에베소서 4장 25-32절	더불어 사는 삶	설교: 이진우 목사
----------------	----------	------------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지음 받은 새사람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과 주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의 보혈로 씻은 성도는 보이는 겉모습은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어 보여도 속사람은 새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우리 삶속에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도 사실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말로 죄를 지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며 또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성도는 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본문 25-28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독질하는 자는 다시 도독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행동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행동 규정을 제안합니다. 첫째,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둘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28절 “도독질하는 자는 다시 도독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셋째,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28절을 봅시다. “도독질하는 자는 다시 도독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은 우리의 행동에 넘치 말아야 할 도 즉, 선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분노가 악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될 때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이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픔을 당한 자 등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권고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시간과 힘과 돈과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하는 일은 악한 자다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말로만 돌아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돕고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믿음과 삶을 더욱 강하게 세우는 선함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성도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 본문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더러운 말이란 히브리어로 “로고스 사프로스”인데, 로고스는 말이고, 사프로스는 부패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구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온갖 부패한 말이 너희의 그 입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가 됩니다. 여전히 마음에 변화가 없고, 새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그 열매이 죽어 부패하고 썩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조차도 더럽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을 즐겨합니다. 때로는 심한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며 자신을 높이고 세우려 합니다. 이러한 말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남의 집이나 차나 그들의 소유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말을 통해서도 개인의 삶과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준으로 조언하는 말에는 사랑이 없는 법입니다.

3. 성도는 하나님처럼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 본문 30-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동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말을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비방하지 않으셨으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 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고, 심지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 자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함할 수 있으며,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를 비난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가 더욱 날다르게 다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세우기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고 화가 나도 사랑으로 덮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신중하게 고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더욱 사랑하라는 세상의 조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손해 보는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사랑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 매 순간 기억한다면, 다른 지체들에게 바르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SINCE 1975

No. 46 - 27

2020. 07. 05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삶” [사도행전 12장 24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맥추감사주일

(1부) 오전 7시 사회: 박 권 제 장 로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도 ————— 다 같 이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486(통474)장 다 같 이
(Praise)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동 성 기 도 _____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 [1부] 김 형 국 집 사
(Prayer) [3부] 박 권 제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에베소서 5장 1~14절[신약.315] 서 영 속 권 사
(Scripture)

찬 양 [1,3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설교 [1,3부] 사랑받는 자녀의 삶 이진우 목사 (Sermon)

현 금 예 헌 [1,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_____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_____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502(통259)장 다 같 이
(Praise)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 이진우 목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찬양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찬 양 _____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이강우권사) 유 욱 자 권 사

성 경 봉 독 —신명기 16장 9~12절(구약p.287)— 인 도 자

설 교 _____ 함께 기억할 은혜 _____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루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루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맥추감사주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시며 준비한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주일예배는 1,3부 예배만 합니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변동 없이 드립니다. 주일 점심식사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7/10) 금요기도회는 ‘찬양위원회’ 주관으로 합니다.
- **【교회사무실 리모델링】**
교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총회주일헌금 결과】**
103명의 세례교인이 1,022,000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남노회 임시회】**
서울남노회 제89회 제1차 임시회가 7월 9일(목) 오후 2시 광림수도원 예배소광장에서 있습니다.
- **【교역자 부임】**
송슬기 교육전도사님이 유초등부 담당교역자로 부임하셨습니다.
- **【7월 행사 안내】**
7월 1일(수)~21일(화) 3/4분기 다니엘기도회
5일(주일) 맥추감사주일
-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예배당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착용, 체온체크, 손 소독, 방역록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안내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3. 악수대신 목례를 부탁드립니다.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답임목사동정

- 성광교회(장민호 목사시무) 여전도회 연합 헌신예배 5일 오후 7시
- 서울남노회 제89회 제1차 임사회 참석 9일(목)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이창현 학생			최효자 권사		바울 남전도회
다음주	전병구 집사	박준홍 청년 박서광 청년		이경자 권사		요한 남전도회

7월	순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5일)	김형국 집사	박권제 장로	서영숙 권사			유옥자 권사	
	2주(12일)	방원식 집사	임만순 장로	김순옥 권사			이강우 권사	
	3주(19일)	채만기 집사	최성현 장로	송명숙 권사			박순진 권사	
	4주(26일)	김경영 집사	윤영준 장로	이승애 권사			강은미 권사	
	예배안내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